環境親和的 觀光農園 立地에 대한 需要者 選好度 調査硏究

유덕기* · 함병은**

A Survey Study on the Demander Preference of Environmented Tourism Farm Location

Yoo Duck-Ki* · Ham Byung-Eun**

〈목 차〉

Ⅰ. 서 론
Ⅱ. 관광농원의 현황
Ⅲ. 농원입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序 論

'60년대이후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離農現狀이 급속히 일어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高齡化, 婦女化와 靑壯年層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休耕地와 廢耕地가 늘어나는 등 농촌지역 경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85년 WTO의 출범으로 인한 農産物 市場 開放은 기반이 약한 한국 농촌에 매우 큰 打擊을 주고 있으며, 지난 '97년말부터 시작된 IMF는 競爭力이 강한 先進農業에 비해 상대적 劣勢인 한국농업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 농업정책은 生産 爲主의 농업소득에 국한한 탓에 농산물 생산은 급속히 늘어났으나, 소비시장의 불안 등으로 오히려 가격 폭락을 가져와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감소시키는 '豊饒속의 貧困'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가져 왔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地域 開發과 농외소득 증대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광농업이 '84년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수료, 연암축산원예대학 관광농업과 겸임교수.

또 급격한 경제 발달로 인한 國民所得 증대와 더불어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勤勞時間 短縮,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家電製品의 보급과 인스턴트 식품의 확산에 따른 餘裕時間의 증대, 동서로 뻗어 있는 高速道路 및 鐵道網의 發達과 자가용 증가등으로 관광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都市化로 인한 인구집중과 過密化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農村 環境에 대한 憧憬을 불러 일으켜 환경친화적 농촌관광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대다수 도시 기성세대들은 농촌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향수가 많으며 자라나는 자녀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촌지역에 대한 觀光需要 增大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地域均衡發展과 地方財政擴 充方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都農交流를 통한 지역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관광농원의 개발 등은 공급자인 농원경영자의 형편에 따라 개발되었을 뿐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선호에는 등한시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15년이 흐른 오늘날에 상당수 관광농원이 부실화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변수는 관광객인 수요자의 외면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관광농원 운영은 수요자를 따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들을 농원으로 유인하는 정책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관광농원의 입지는 수요자들을 농원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관광농원이 설립되어 있는가의 위치에 따라 방문객수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요자인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농원의 입지는 어느 곳이 가장 바람직하며, 입지선정에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친화적 관광농원 입지성에 대한 통계빈도 분석과 정준상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친화적 관광농원이 최적 입지를 통하여 관광농원 수요자 및 공급자의 비용절감과 잠재된 관광수요의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Ⅱ. 觀光農園의 現況

1. 관광농원의 정책방향

'83년 12월 農工地區 개발 등 획기적인 농외소득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듬해인 '84년에 12개의 '관광농업개발 시범지구'가 조성되었다. 이후 해마다 시범지구가 개발되다가, '90년에 '農漁村特別措置法'이 제정되어 農漁村休養團地, 관광농원, 民泊마을 등 관광소득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여자격으로는 '87년까지는 開發指定 地域에 거주하고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5호이상 공동참여만 허용하였으나, 너무 제한적이어서 기대만큼 관광농업 활성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88년부터 비농민과 다른 지역 移住者도 가능토록 참여자격을 緩和하였으나, 도시자본의 무분별한 流入으로 농촌지역이 投機의 대상이 되고 농민과의 違和感 造成 등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비판에 '91년부터 다시 참여자격을 강화하여 현지 농어민 5호이상으로 타지역민의 참여를 禁止시켰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광농업을 '84년부터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育成함으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농어촌 지역의 잠재된 賦存資源을 농업과 連繫 개발하고, 나아가 자원의 생산화 도모, 증가하는 국민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 공간으로 활용함으로 도시민의 휴양기능의 활성화와 情緖涵養과 건전한 수요를 充足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相互交流를 통한 농어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관광농업의 목적이 있다.

2. 觀光農業의 開發類型

관광농업의 개발 유형으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간지역 休養林, 가족단위 週末農園 型, 兒童自然學習型, 스포츠레저형, 靑少年心身修鍊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시설은 농장과 농산물 판매시설이 주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농산물판매장, 관광과수원, 관광축산, 관광채소원, 관광낚시터, 관광야조원, 관광화원, 관광양어장, 관광도예원, 관광분재원, 관광과수묘목원, 관광특용작물원으로 구분 분류하고 있다.

<표 1> 관광농업의 개발유형

유 형	시 설 물 설 치 유 형
아동자연학습형	기본시설 * +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놀이터, 기타
가족단위주말농원형	기본시설 + 야영장, 민박, 특산물판매장, 어린이놀이터, 간이식당, 원두막, 벤치 등 휴식소
청소년심신수련형	기본시설 +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
산간지역휴양형	기본시설 +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풀장, 기타
스포츠레저형	기본시설 + 테니스장, 풀장, 운동장,

주 : 기본시설 * : 농장(관광목장, 관광과수원, 관광화원등), 농수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자료 : 박영수외 2인, 한국관광농원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觀光農園의 實態

'97년말 현재 전국의 관광농원수는 382개소이며, 참여농가수는 1,648호이다. 12개 시도중 대전과 광주는 각각 1개소이며, 광역지방자치 중 전남이 72개로 농원수가 가장 많고 경기도가 21개소로 가장 적은 광역단체이다. 또한 제주도는 '96년에는 관광농원이 제일 적었으나 '97년에는 5개가 늘어났으나 일반관광시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광농원이 적은 편에 속한다. 총종사자수는 1,876명이고, 지정면적은 935.2ha이며, 역시 전남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광농원당 가구구성비를 '97년의 전국총가구 12,958천가구에 대비 0.003%로 나타내고 있어 관광농원 수요에 대한 관광농원의 규모가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표 2> 관광농원 현황('97년 12월말 기준)

시, 도	지정면적 (ha)	참여호수 (농가)	종사자수 (명)	방 객 수 (연간)	농 원 수 (개소)	농원당평균 방문객수
광 주	4.0	1	1	500	1	500
대 전	5.0	19	19	100	1	100
울 산	6.4	9	14	55,000	2	27,500
경 기	43.0	40	92	268,900	21	12,805
강 원	120.8	331	357	533,370	49	10,885
충 북	71.6	146	192	602,200	32	18,819
충 남	125.5	233	204	731,850	53	13,808
전 북	64.9	113	131	205,500	30	6,850
전 남	205.5	266	245	779,288	72	10,823
경 북	106.9	185	285	801,500	47	17,053
경 남	134.7	214	199	333,343	51	65,359
제 주	47.0	91	137	634,000	23	27,565
계	935.2	1,648	1,876	4,945,451	382	12,946

자료 : 농림부 농촌정비과.

또한 관광농원의 '97년도 총수입은 41,1635백만원, 총비용은 24,411백만원으로 16,752백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관광농원수가 382개소로서 농원당 44백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중 음식물 판매가 21,326백만원으로 51.8%를 차지하였고, 농산물판매는 6,097백만원으로 14.8%, 특산물 판매가 2,747백만원으로 6.7%를 차지했으며, 숙박은 5,743백만원으로 13.9%에 불과하였다. 시도별 관광농원별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보면 농원당 년간 평균 순소득은 4천4백만원으로 '97년의 도시가계 소득인 2,287천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북지역의 농원당 순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방객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농원의 소득과 내방객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시도별 관광농원소득 현황('97년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수 입(농가소득 + 농업외 소득 = A)						총비용 (B)	순소득 (A-B=C)	농원당 순소득
	농산물 판 매	특산물 판 매	음식물 판 매	숙 박	기 타	계			
광주	180	-	-	-	50	230	120	110	110
대전	114	-	-	-	54	168	60	108	108
울산	60	-	400	110	40	610	560	50	25
경기	464	154	1,181	256	481	2,535	1,721	814	39
강원	454	134	1,943	656	271	3,458	1,261	2,197	45
충북	884	548	5,859	1,673	616	9,580	5,652	3,928	123
충남	1,404	301	2,254	380	340	4,679	2,943	1,736	33
전북	457	187	961	256	19	1,879	1,220	659	22
전남	775	500	2,664	535	875	5,349	2,806	2,543	35
경북	459	151	3,061	1,032	959	5,662	3,320	2,342	50
경남	626	169	1,681	769	506	3,751	2,170	1,581	31
제주	220	603	1,322	77	1,039	3,261	2,578	683	30
계	6,097	2,747	21,326	5,743	5,250	41,163	24,411	16,752	44

자료 : 농림부 농촌정비과.

Ⅲ. 農園立地에 대한 消費者 選好度 分析

1. 調査槪要

조사된 설문자의 경제사회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에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자는 불특정 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된 총대상자는 565명이며, 이 중 남성이 45.2%인 257명, 여성은 54.2%인 308명이다.

조사기간은 '98년 12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40일간이며, 조사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조사원을 선정하여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시킨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조사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13명(3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로 156명(27.5%), 20대가 104명(18.3%), 50대가 68명(12.0%) 그리고 10대 이하가 16명(2.8%), 60대이상이 9명(1.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왕성히 일하고 있는 산업세대인 30-40대가 조사자의 65%를 차지하였다.

또한 직업을 보면 회사원이 229명(41.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부가 159명(28.0%), 전문자유직이 88명(15.5%), 학생이 38명(6.7%), 상업이 26명(4.6%), 공무원이 13명(2.3%), 농업이 5명(0.9%), 그리고 기타가 10명(1.8%)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인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이 비봉급자인 전문자유직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학력별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대졸이상이 289명(50.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고졸이 240명(42.3%)이고 중졸이 26명(4.6%), 국졸이하가 5명(0.9%)으로 대다수 고졸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실태

구 분		조사자수(명)	비 율 (%)
성 별	남 성	257	45.5
	여 성	308	54.5
연 령	19세이하	16	2.8
	20-29세	104	18.4
	30-39세	213	37.6
	40-49세	156	27.6
	50-59세	68	12.0
	60세이상	9	1.6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75	13.6
	101-200만원	242	43.9
	201-300만원	154	27.9
	301-400만원	55	10.0
	401-500만원	19	3.4
	501-600만원	3	0.5
	601만원이상	3	0.5
직 업	학 생	38	6.8
	농수산업	5	0.9
	회 사 원	229	41.0
	공 무 원	13	2.3
	주 부	159	28.5
	전문자유직	88	15.8
	상 업	26	4.7
학 력	국졸 이하	5	0.9
	중 졸	26	4.6
	고 졸	240	42.9
	대졸 이상	289	51.6
가 족 수	독 신	21	3.7
	2명	44	7.8
	3명	104	18.4
	4명	257	45.6
	5명 이상	138	24.5
자가용 소유여부	있 음	444	78.7
	없 음	120	21.3

월평균 소득을 보면 101-200만원대가 242명(42.6%)로 가장 많고 201-300만원대가 154명(27.1%), 100만원 이하가 75명(13.2%), 301-400만원이 55명(9.7%), 401-500만원이 19명(3.3%) 그리고 501-600만원과 600만원이상이 각각 3명(0.3%)으로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월평균 소득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보면 호당 4명인 가구가 257호(45.2%)로 가장 많고 다음은 5명이상이 138호(24.3%), 그리고 3명이 104호(18.3%), 2명이 44호(7.7%), 혼자사는 가구가 21호(3.7%)으로 집계되어 평균 호당 3.8명의 가족 구성원을 나태냈으며, 자가용을 소유한 가구가 444호(78.2%),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120호(21.1%)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觀光農園 需要者의 選好度

경쟁력있는 관광농원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다수 수요자의 지속적인 내방객 규모확보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호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광농원 선택에 있어서의 수요자들이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 응답자 561명 중 비용부문이 142명(2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연농촌경관이 89명(15.9%)으로 환경친화적인 선호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안락한 휴식이 61명(10.9%)으로 공해와 소음이 심한 일반 유명관광지를 피해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관광농원의 접근성인 수요자의 출발지로부터 관광농원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이 119명(21..2%), 교통수단이 56명(10.0%)으로 관광농원 입지가 농원선택에 중요한 영향인자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관광농원 선택시 수요자의 선호도

구 분	응답자수(명)	비 율(%)
비 용	142	25.3
거리 및 소요시간	119	21.2
교 통	56	10.0
음 식	2	0.4
자 녀 학 습	56	10.0
자연농촌경관	89	15.9
안락한 휴식	61	10.9
농산물구입	9	1.6
농원내 유물유적	8	1.4
특 별 행 사	1	0.2
편 의 시 설	14	2.5
인근관광지	4	0.7
합 계	561	100.0

다시말해 <표 5>에서 수요자가 관광농원을 선택할 경우 비용이나 환경친화적인 요소, 그리고 관광농원의 입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관광농원 개발시 입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농원방문 소요시간, 농원과의 거리, 도로 및 교통수단, 인근관광지와의 연계여부에서 31.9%의 높은 수요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요소와 농원의 입지가 소비자의 방문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32.5%)이 여성(20.1%)보다 농장입지를 더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35.3%), 40대(34.4%)와 20대(31.4%) 등 사업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농원입지를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10대(6.3%)의 학생층이나 50대이상(19.5%)의 노장년세대는 거의 고려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농장입지를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33.3%), 대졸(31.8%) 등 학력이 높을수록 농장입지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으나, 중졸(12.0%) 이하는 거의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과 회사원 그리고 주부들이 농장선택시 입지에 관심이 높고, 대도시 소비자가 중소도시나 농어촌 소비자보다 관광농원 선택시 환경친화적 농원입지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立地類型別 選好度 分析

본 조사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관광농원이 입지한 위치에 따라 첫째 산악(계곡)형 관광농원, 둘째 내륙형 관광농원, 셋째 임해연안형 관광농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수요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568명중 산악형(계곡) 농원에 가겠다는 응답이 269명(47.4%)으로 제일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은 내륙형 농원으로 213명(37.5%)이 가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해연안형 농원에는 84명(14.8%)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85%이상의 수요자들이 산악이나 계곡 또는 호수가 등 내륙지역에 위치한 관광농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 농원입지 유형별 선호도

구 분	조사자수(명)	비 율 (%)
산 악 형	269	47.5
내 륙 형	213	37.6
임해연안형	84	14.8
합 계	568	100.0

여기서 환경친화적 관광농원 입지의 유형별 선호도에 대한 수요자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악형(계곡)농원

산악형 관광농원을 희망하는 경우 남녀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30-40대(35.3-30.9%)가 가장 선호하며 오히려 20대(17.1%)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대(43.0%)가 가장 높고, 소득이 높아지면 산악형 농원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은 높을수록 오히려 산악형 농원의 선호도가 높았다. 주거별로 보면 대도시의 소비자가 산악형관광농원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역시 3시간 이내의 위치에 있는 농원을 희망(96.0%)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수단으로 대다수 자가용(71.3%)을 이용하며, 인근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농원을 가는 것을 희망(7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문하고자 하는 농원의 운영형태는 농산물채취형이 99명(3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수단(75명), 장소제공(51명), 농산물판매형(42명) 등의 순이며, 주요관심이 되는 농원의 기능은 주말농원이 137명(51.1%)로 과반수 이상이고, 다음으로 자연학습형으로 77명(28.7%)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악형 관광농원일 경우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직접 농사체험을 통해 실직적인 체험관광을 원하는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절약형 수요자 중심으로 주말에 자녀들과 같이 가족동반으로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륙형 농원

내륙형 관광농원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경우 산악형 농원과는 달리 여성(61.0%)이 남성(39.0%)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41.3%)가 가장 높고 40대(21.6%)와 20대(20.7%)가 비슷한 양상이며, 50대(11.3%)이상도 산악형농원보다 선호가 높았다.

이는 산악형 농원과는 달리 내륙형 농원일 경우 여성이나 청소년 또는 연령이 높은 세대등 일반적으로 편안한 관광을 원하는 수요자의 선호가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월평균소득일 경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산악형관광농원(40.0%)보다 내륙형 관광농원(52.0%)의 선호가 높게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산악형농원과는 달리 학력이 낮을수록 선호가 높았으며, 3명의 가족구성원 세대의 선호가 산악형(37.5%)보다 내륙형 농원(44.2%)이 높았다.

이밖에 거주지역 및 소요시간, 교통수단, 인근관광지 연계여부 및 선호하는 농원형태와 기능 등이 산악형 농원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3) 임해연안형 농원

임해연안형 농원인 경우 산악형이나 내륙형 관광농원에 비해 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편이나 여성(52.4%)의 선호가 남성(47.6%)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해연안형 농원의 선호하는 수요자의 상당수가 심신수련(27.7%)을 하기 위해 농원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대들의 선호(31.3%)가 다른 농원보다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농원의 형태도 농산물 채취형(41.0%)이 가장 높았으나, 다음은 산악형이나 내륙형농원과는 달리 생산수단형(18.1%)보다 오히려 장소제공형(21.7%), 농산물판매형(19.3%)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해연안형의 경우 농사체험이나 생산수단을 위한 관광농원 이용보다 심신이나 오락위주의 관광농원 이용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선호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 立地接近性別 選好度 分析

자연친화적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개발후보지의 입지접근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출발지로부터 관광농원까지의 소요시간,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주변에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적등 관광지와의 연계여부라고 말 할 수 있다.

〈표 12〉에서 보면 수요자가 관광농원 선택에 있어서 관광농원 입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으로는 교통수단이고, 그다음으로 소요시간이며, 인근관광지 연계여부 등의 순위로 분석되었다.

1) 소요시간

적정소요 시간은 조사자 565명 중 2-3시간이 298명(52.5%)으로 가장 높고, 1시간정도가 245명(43.4%)으로 분석되었으며, 4-5시간은 15명(2.7%), 5시간이상은 7명(1.2%)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자의 96.1%가 3시간 이내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수요자들의 출발발지로부터 3시간 이내에 위치한 곳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개발후보지라 할 수 있다.

<표 7> 소요시간에 대한 수요자선호

구 분	조사자수(명)	비 율(%)
1시간	245	43.4
2-3시간	298	52.7
4-5시간	15	2.7
5시간 이상	7	1.2
총 계	565	100.0

2) 이용교통수단

수요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조사자 565명중 72.6%가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 이용이 16.6%, 그리고 전철 및 철도이용이 9.6%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농원의 개발후보지로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 자가용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로망등 교통의 편의성과 인접한 지역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이 관광농원의 개발입지로서 적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8> 이용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자선호

구 분	조사자수(명)	비 율(%)
자 가 용	410	72.6
대중교통수단	94	16.6
자전거, 오토바이	2	0.4
전철 및 철도	54	9.6
도 보	5	0.9
총 계	565	100.0

3) 관광지 연계여부

관광수요자에 대한 관광농원 이용에 있어 유명한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적지등 인근의 관광지 연계여부에 대하여 조사자 561명중 76.3%이 연계하여 가겠다고 응답한 반면 관광농원만 가겠다는 응답자는 133명중 23.7%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개발후보지로서의 입지선정은 주변지역에 볼거리나 방문 견학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이 단독으로 관광농원만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광농원 개발후보지로는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 9> 관광지연계여부에 대한 수요자선호

구 분	조사자수(명)	비 율(%)
관광농원만 감	133	23.7
연계하여 감	428	76.3
총 계	561	100.0

5. 立地類型과 立地接近性과의 相關性 分析

1)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특징

정준상관분석이란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의 확장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여러 독립변수들의 최적선형결합을 이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한다. 반면, 정준상관분석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두 변수집단인 반응변수집단과 설명변수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변수집단 사이의 상관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찾는 것이다.

p+q개 확률변수들을 두 개 집단으로 분류할 때 p개 확률변수로 구성된 반응변수집단(농원형태)을 확률벡터 $\boldsymbol{Y}$로 표시하고, q개 확률변수로 구성된 설명변수집단(인구사회학적 변수)을 $\boldsymbol{X}$로 표시하면 $\boldsymbol{Y}$와 $\boldsymbol{X}$의 연관관계는 각 변수집단에서 선택되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W = \boldsymbol{a}'\boldsymbol{Y} = a_1 Y_1 + a_2 Y_2 + \cdots + a_p Y_p \quad \cdots\cdots \text{(식 1)}$$

$$V = \boldsymbol{b}'\boldsymbol{X} = b_1 X_1 + b_2 X_2 + \cdots + b_q X_q \quad \cdots\cdots \text{(식 2)}$$

여기서, 선형결합에 사용된 계수 a_i, b_i는 선형결합 W와 V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선형결합 W, V의 분산과 공분산을 구하면

$$Var(W) = \boldsymbol{a}' Cov(\boldsymbol{Y})\,\boldsymbol{a} = \boldsymbol{a}' \sum_{yy} \boldsymbol{a}$$

$$Var(V) = \boldsymbol{b}' Cov(\boldsymbol{X})\,\boldsymbol{b} = \boldsymbol{b}' \sum_{xx} \boldsymbol{b}$$

$$Cov(W, V) = \boldsymbol{a}' Cov(\boldsymbol{Y}, \boldsymbol{X})\,\boldsymbol{b} = \boldsymbol{a}' \sum_{yy} \boldsymbol{b}$$

이 된다. 여기서, $\sum_{yy}$, $\sum_{xx}$는 각 변수집단내 분산공분산행렬을 의미한다. 또한 확률변수 W와 V의 단순상관계수 $\rho(W, V)$는

$$\rho(W, V) = \frac{Cov(W, V)}{\{Var(W)\,Var(V)\}^{1/2}} = \frac{\boldsymbol{a}' \sum_{yx} \boldsymbol{b}}{\{(\boldsymbol{a}' \sum_{yy} \boldsymbol{a})(\boldsymbol{b}' \sum_{xx} \boldsymbol{b})\}^{1/2}} \quad \cdots\cdots \text{(식 3)}$$

이고, 이 때 W와 v의 상관계수를 최대화 시키는 계수벡터 $\boldsymbol{a}$와 $\boldsymbol{b}$는

$$a' = e'_1 \sum_{yy}^{-1/2}, \quad b' = f'_1 \sum_{xx}^{-1/2} \quad \cdots\cdots (식\ 4)$$

이며, k번 째 정준변수짝 W_k와 V_k는

$$W_k = e'_k \sum yy^{-1/2} Y, \quad V_k = f'_k \sum xx^{-1/2} Y \quad \cdots\cdots (식\ 5)$$

이 된다. 여기서 (p×1)고유벡터 e'와 f'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등식이 성립되는 가장 큰 고유값 λ_1에 대응되는 고유벡터이다(Johnson and Wichern 1988).

$$|\sum_{yy}^{-1/2} \sum_{yx} \sum_{xx}^{-1} \sum_{xy} \sum_{yy}^{-1/2} - \lambda I| = 0 \quad \cdots\cdots (식\ 6)$$

$$|\sum_{xx}^{-1/2} \sum_{xy} \sum_{yy}^{-1} \sum_{yx} \sum_{xx}^{-1/2} - \lambda I| = 0 \quad \cdots\cdots (식\ 7)$$

이런 방식으로 i번째 정준변량의 쌍을 구하게 된다. 이때 λ를 정준상관이라고 하고 a_i와 b_i를 원정준상관계수라한다. 이러한 정준상관계수는 변수집단내에서 각 변수가 차지하는 가중값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준계수는 다중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각 변수들이 집단내 정준변수들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공헌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농원입지에 대한 선호도

관광농원의 입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집합(인근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소요시간)과 관광농원 입지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역시, 두 변수가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를 이용하여 먼저 반응변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0> 농원입지 반응변수

[농원입지]	
산악 / 계곡 = 1	=> place1 = 1, place2 = 0
내륙 / 호수 = 2	=> place1 = 0, place2 = 1
임 해 해 안 = 2	=> place1 = 0, place2 = 0

마찬가지로 설명변수집단을 가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11> 농원입지설명변수

[설명변수]
인근관광지 연계여부 : 연 계 함 = 1 => near = 1
연계안함 = 2 => near = 0
교통수단 : 자 가 용 = 1 => tranl = 1, tran2 = 0, tran3 = 0
버 스 = 2 => tranl = 0, tran2 = 1, tran3 = 0
철 도 = 3 => tranl = 0, tran2 = 0, tran3 = 1
기 타 = 4 => tranl = 0, tran2 = 0, tran3 = 0
소요시간 : 1 시 간 = 1 => timel = 1, time2=>0
2~3시간 = 2 => timel = 0, time2 = 1
4시간이상 = 3 => timel = 0, time2 = 0

이상과 같이 정의된 두 변수집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준상관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

$$W = \boldsymbol{a}' \boldsymbol{Y} = a_1 Y_1 + a_2 Y_2 + \cdots + a_p Y_p$$
$$= a_1 place1 + a_2 place_2 \quad \cdots\cdots (식\ 7)$$
$$V = \boldsymbol{b}' \boldsymbol{X} = b_1 X_1 + b_2 X_2 + \cdots + b_q X_q$$
$$= b_1 near + b_2 trans1 + b_3 trans2 + b_4 trans3 + b_5 time1 + b_6 time2 \quad \cdots\cdots (식\ 8)$$

따라서, 앞서 살펴본 정준상관분석의 이론을 통해 이 두 변수집단의 관계를 최대로하는 정준상관계수 $\boldsymbol{a}$, $\boldsymbol{b}$를 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농원입지 선호도에 대한 정량치(정준상관분석)

구 분	변 수	변 수 값	정 준 상관계수	빈 도 수	표준정준 상관계수	제곱정준상관 (설명력)
반 응 변 수	농원입지 (place)	산악/계곡	1.16	269	-0.078	3.94
		내륙/호수	2.78	213	0.208	
		임해해안	0.00	82	-0.284	
설 명 변 수	인근관광지 연계여부(near)	연 계 함	1.795	133	1.369	1.795
		연계안함	0.00	428	-0.426	
	교통수단 (trans)	자 가 용	2.59	410	0.112	3.11
		버 스	2.09	94	-0.383	
		철 도	2.62	54	0.139	
		기 타	0.00	7	-2.476	
	소요시간 (time)	1시간미만	2.16	245	0.234	2.21
		2~3시간	1.87	298	-0.05	
		4시간 이상	0.00	22	-1.93	

〈표 12〉를 통해 반응변수인 농원입지와 설명변수인 인근관광지 연계여부, 교통수단, 소요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응변수에 대한 정준상관계수가 산악계곡(-), 임해해안(-)의 관광농원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내륙·호수(+)형 농원과는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농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교통수단(3.11)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 자가용과 철도를 이용하겠다고 한 수요자들은 내륙·호수 지역에 위치한 농원을 선호한 반면 버스와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한 수요자는 산악계곡 및 임해해안 지역에 위치한 관광농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농원 입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출발지로부터 농원까지의 소요시간으로 1시간 미만인 경우 내륙·호수의 농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악계곡및 임해해안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는 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륙호수형의 농원을 개발 할 경우 대도시 중심의 수요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한 1시간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 농원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며, 산악형이나 임해형의 관광농원일 경우 이보다 약간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7〉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먼 거리에 위치해도 3시간 이상이 걸려서는 개발후보지로는 부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인근관광지 연계여부에서 연계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내륙·호수 지역에 위치한 농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산악계곡, 임해해안 지역에 위치한 농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륙형의 농원일 경우 대부분 짧은 시간안에 주목적이 일반관광지이며 인근 관광농원을 부차적으로 식사나 오락 등을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반면, 산악계곡형이나 임해연안형의 경우 비교적 숙박 할 수 있는 장시간에 농원을 주목적으로 이용하고 부차적으로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내륙호수형의 농원일 경우 장소제공이나 시설물대여 등의 농원개발이 유리하며, 산악이나 해안형 농원일 경우 농사체험이나 생산수단 등의 농원 개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응변수가 떨어져도 인근관광지 연계는 〈표 9〉에서 보았듯이 76.3%의 선호를 가지고 있어, 산악이나 내륙형의 농원일지라도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 곳이 관광농원 입지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結 論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개발후보지로서의 입지성은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농장을 찾아가는 수요자나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표 2〉와 〈표 3〉에서 보았듯이 관광농원의 소득은

관광이용자수와 정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농원 입지가 관광수요자가 선호하는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그렇치 않는 곳에 위치한 관광농원보다 수요자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며, 수요자는 농원의 입지나 소요시간, 교통수단 및 인근관광지와의 연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원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의 분석에서 보면 관광농원을 찾아올 소비자의 30%이상이 관광농원 선택에 제일 먼저 관광농원의 입지여부와 접근성인 소요시간, 교통수단 및 인근광관지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이라 하였고, 특히 관광농원의 주수요층인 30대와 40대가 농원선택의 입지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출발지로부터 농원까지의 접근성에서 교통수단이 가장 큰 영향인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요시간이며, 인근관광지 연계여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교통수단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며, 소요시간은 대부분 3시간 이내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인근관광지와 연계하여 방문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산악이나 계곡에 위치한 관광농원을 가장 선호하고, 주말농원이나 자녀학습등으로 이용할 의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원입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교통편의가 좋은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의 고속도로나 국도등 농장이용에 진입이 편리한 도로등 제반 교통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후보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근지역에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적지등이 인접한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수요자가 주거하는 지역에서 3시간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곳이 관광농원 개발 입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개발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 관광농원의 경영자나 앞으로 농원을 경영하고자 하는 예비경영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관련업계에 환경친화적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공간적 재편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參考文獻

강승진, 『제주지역농업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한수, 『경제지리학 연구』.

성내경, 『SAS/STAT-회귀분석』.

유승우 · 민상기,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정태홍, 『농업관광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최병선, 『PC SAS 입문』, 박영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방안연구』, 1996.
_____,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996.
한국관광농업학회, 『관광농업연구』. 1995.
한국관광농원협회, 『IMF극복을 위한 관광농원 경영전략』, 1997.
_____, 『IMF극복을 위한 관광농원 경영전략』, 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관광개발의 이론과 정책추진 실태』.